

옥갈리경(Vakkali Sutta)

박갈리Vakkali suttaṃ1. 2. 4. 5

Vakkali suttaṃ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벨루바나무에 있는 깔란다까니바빠에 계셨다. 그때 존자 박갈리는 도공의 집에 있으면서 병이 들어 괴로워했는데 아주 중병이 들었다. 그래서 존자 박갈리는 시자들에게 말했다.

[박갈리] "벗들이여, 그대들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으시오.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드리고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데 아주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 박갈리가 있는 곳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벗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수행승들은 존자 박갈리에게 대답하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데 아주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 박갈리가 있는 곳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존자 박갈리가 있는 곳을 찾았다. 존자 박갈리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침상에서 떨며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존자 박갈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 "박갈리여, 그대는 침상에서 떨며 일어서지 말라. 이곳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 내가 앉을 것이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아서 세존께서는 존자 박갈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 "박갈리여, 그대는 참아내고 견디어 낼 만한가? 그대의 고통은 증가하고 줄어들지는 않는가? 줄어들고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빠짐.....

앉아서 세존께서는 존자 박갈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 "박갈리여, 어떠한 가책이 될만한 일이라도 한적이 있는가? 어떠한 후회가 될만한 일이라도 한적이 있지 않은가?"

[박갈리] "세존이시여, 실로 가책이 될만한 일이 적지 않고 후회가 될만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존] "박갈리여, 그대가 계행을 실천함에 스스로를 욕되게 한 적이 없는가?"

[박갈리]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을 실천하는데 스스로를 욕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세존] "박갈리여, 그대가 계행을 실천함에 스스로를 욕되게 한 적이 없다면, 그대에게 어떠한 가책이 있고 어떠한 후회가 있던 말인가?"

[박갈리]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길 바랬으나 세존을 친견할 만큼 몸에 기력조차 없습니다."

[세존] "박갈리여,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 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 하느냐? 박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박갈리여, 참으로 법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법을 본다."

[세존] "박갈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이나 감수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박갈리]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박갈리여, 그러므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나서 '다

시 태어남은 파괴되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 고 그는 분명히 안다."

그 후에 존자 박갈리는 세존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자들에게 말했다.

[박갈리] "벗들이여, 여기 나의 침상을 들어서 이씨길리 산 중턱의 검은 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집안에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벗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수행승들은 박갈리에게 대답하고 존자 박갈리의 침상을 들어서 이씨길리 산 중턱의 검은 바위로 옮겼다.

마침 세존께서는 그날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을 깃자꾸따 산에서 지냈다. 이 때에 두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두루 깃자꾸따 산을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하늘사람]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해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하늘사람]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그는 잘 해탈하여 해탈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 하늘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나서 세존께 인사를 하고 세존의 오른 쪽을 돌아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날 밤이 지난 뒤에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여기 수행승 박갈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 와서 수행승 박갈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박갈리여, 세존과 두 하늘사람의 대화를 들어 보라. 벗이여, 지난 밤에 두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두루 깃자꾸따 산을 비추며 세존이 있는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해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그는 잘 해탈하여 해탈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벗이여, 박갈리여, 그것에 대하여 세존은 이와 같이 말한다. 박갈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목숨을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하고 존자 박갈리가 있는 곳을 찾았다. 찾아가서 존자 박갈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들] "박갈리여, 세존과 두 하늘사람의 대화를 들으십시오. 벗이여, 지난 밤에 두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두루 깃자꾸따 산을 비추며 세존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해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그는 잘 해탈하여 해탈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벗이여, 박갈리여, 그것에 대하여 세존은 이와 같이, '박갈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목숨을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에 존자 박갈리는 시자들에게 말했다.

[박갈리] "벗들이여, 나를 침상에서 내리도록 하계.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벗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수행승들은 대답하고 그를 침상에서 내렸다.

[수행승들] "벗이여, 지난 밤에 두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두루 깃자꾸따 산을 비추며 세존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해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하늘사람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그는 잘 해탈하여 해탈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벗이여, 박갈리여, 그것에 대하여 세존은 이와 같이, '박갈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목숨을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박갈리] "벗들이여, 내 이름으로 세존의 두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말씀드리십시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세존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물질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수가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각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형성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의식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하십시오."

'벗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수행승들은 존자 박갈리에게 대답하고 그곳을 출발했다.

존자 박갈리는 그들 수행승이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칼로 자결했다.

마침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수행승 박갈리는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세존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물질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수가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각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형성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의식이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없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알렸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가서 이씨길리 산협의 검은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라. 그곳에서 훌륭한 아들 박갈리는 자결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라고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그리고는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이씨길리 산협의 검은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세존께서는 존자 박갈리가 멀리서 침상 위에 어깨를 구부리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때에 연기가 자욱하고 거무칙칙한 것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그 사잇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알렸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연기가 자욱하고 거무칙칙한 것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그 사잇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느냐?"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죽음의 신인 악마 빠삐만이 '훌륭한 아들 박갈리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훌륭한 아들 박갈리의 의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Eso kho bhikkhave, māro pāpimā vakkalissa kulaputtassa viññāṇaṃ samanvesati, kattha vakkalissa kulaputtassa viññāṇaṃ patitthitanti.

Appatitthatena ca bhikkhave, viññāṇena vakkali kulaputto parinibbutoti.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아들 박갈리의 의식은 머물지 않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註.

- 박갈리 : 그는 싸밧티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세가지 베다에 능통했고 부처님을 친견하는데

피로함을 느끼지 못하더니 결국 부처님을 따라 수행승이 된 후에 식사도 목욕도 잊고 부처님만을 명상했다. 어느날 부처님은 그에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고 말했다. -> 맞지마 니까야 3-237 참조. 붓다고사에 의하면, 우안거를 지낸 뒤에 박깔리는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도중에 병이 들어 들것에 실려 옹기쟁이의 움막에 옮겨졌다. 음식을 잘못 먹고 발작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 마련된 자리 : 붓다 당시에 수행승들은 스승이 방문하면 언제나 미리 자리를 준비했다.
- 박깔리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박깔리어, 참으로 법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법을 본다 : yo kho vakkali dhammam passati so mam passati, yo mam passati so dhammam passati. dhammam hi vakkali passanto mam passati mam passanto dhammam passati. -> 부처님과 박깔리의 대화 가운데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 박깔리의 자살 : 상윳따 니까야 1-119의 고디까(godhika)의 자살과 비교하라. 다른 경전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다른 전승에서는 박깔리가 자결하지 않았고 스승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붓다고사는 '박깔리 장로가 자존심이 있어 집중과 통찰로서 부서지고 남은 번뇌의 활동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번뇌를 소멸한 자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고통스런 목숨을 가지고 무엇하랴며 칼을 들어 죽으리라 순간적으로 목의 동백을 찢었다. 그러나 그에게 괴로운 고통이 생겨났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범부적 상태를 깨닫고 불명확한 수행의 토대에서 재빨리 수행의 토대를 갖추어 알아채면서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

(상윳따니까야 바깔리경-Vakkali Sutta,SN22.87, 전재성님역)